

## 여호수아 24장 1-13절의 전승사와 육경의 구성사적 접근에 대한 연구

최종원(서울신대)

---

### 1. 들어가기

여호수아 24장은 신명기 26장 5-9절과 같이 작은 신앙고백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전승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명기 26장이 땅을 수여받은 조상들에 의한 예식이라면,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역사관을 내포하고 있을까? 여호수아 24장의 전승사 접근은 육경의 형성사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벨하우젠 이후 육경의 개념은 시간을 거듭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수정되고 있다. 여호수아 24장의 문학적 성장과 그 발전은 육경뿐만 아니라 오경과의 연결 문제, 나아가 구경과의 연결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여호수아 24장은 신명기역사가의 관점 가운데 소위 신명기사가계(비제사장 계열) 이후의 편찬자(구성자 또는 구성한 그룹)가 제사장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이론들 속에서 본 소고는 여호수아 24장은 신명기사가 자료 이후의 편찬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신명기사가 자료 이후의 편찬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사장 계열 또는 제사장계 이후의 종합적인 편찬이 있는가? 그러한 전승들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24장의 편찬자는 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 22장의 전승 배경(실로)과 다른 전승 자료(세겜)를 사용하는가? 신명기사가의 실로전승의 차용은 제사장계 사고를 유용하고 있으며, 세겜전승의 차용은 비제사장계 사고의 흔적들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전승사적인 관심이 본문의 고대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전승의 차용과 본문의 문학적 구성과의 연결은 본문의 최종 단계에 관심을 두면서 구성사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여호수아 24장에 대한 전승과 본문의 구성에 대한 질문은 육경 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질문이다. 분명 여호수아 24장은 매우 다양한 전승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재구성했으며, 이 자료가 필요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육경을 마무리하고 있다. 동시에 신명기사가의 신앙전승 뿐만 아니라 제사장 계열의 신앙전승을 함께 구성하여 적어도 구경까지 한 단위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이야기 고리 가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 24장은 사경과 육경 그리고 구경으로 이어지는 폭넓은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육경의 형성사가 복잡한 자료들과 전승의 역사를 포함

---

1 육경과 구경에 대한 자료설의 최근 입장은 다음 소고를 참고하라. K. Schmid, "Introduction", J. C. Gertz et al.(eds.), *The Formation of the Pentu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779-782.

하여 제사장계와 비제사장계의 통합 편찬자에 의하여 구성된 흔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통합 편찬자에 의하여 수집된 전승들을 재구성하거나 그것들을 편찬(또는 편집)한 흔적들을 통하여 여호수아 24장이 육경 안에서 어떠한 의도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집중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 2. 여호수아 24장의 현주소로서 연구사

오늘날 성서연구 특히 오경, 넓게는 구경으로 그 범위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작용은 모두 문서설에 기반을 둔 비평작업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주요한 흐름은 적어도 70년대를 중심으로 야휘스트의 저자 개념이 신명기사가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부터다.<sup>2</sup>

적어도 벨하우젠 이후로 20세기까지 여호수아 24장은 자료설에 의하여 사경과 육경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늘날 여호수아 24장은 더 세분화되어 구경 입장에서 사사기 또는 사무엘서와 연결되는지 또한 여호수아는 사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2 이 개념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은 렌토르프(R. Rendtorff), 블룸(E. Blum), 슈미트(H. H. Schmid) 등이다. 이들의 연구는 적어도 오경 안에서 제사장 학파와 신명기계 학파로 양분화되었다. 오늘날 구약연구는 오경에서 전기예언서에 이르는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연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후 예언서와 성문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장 최근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R. G. Kratz, "The Pentateuch in Current Research: Consensus and Debate", Th. B. Dozeman et al.(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1-61. 특히 여호수아 24장에 대한 자료설은 각주 73을 보라. 또한 가장 최근 고대 근동의 조약과 관련한 신명기 연구에서 여호수아 24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J. Stackert, *Deuteronomy and the Pentateuc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2), 86-89.

벨하우젠 이후, 폰 라트(G. von Rad)는 양식사 비평 입장에서 신명기 26장과 함께 여호수아 24장을 작은 신앙고백문의 원자료로 보았고 이것이 성장하여 현재 육경을 형성했다고 보았다.<sup>3</sup> 그러나 노트는 전승사적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신명기로 시작하는 신명기사가의 역사로 보았고, 그 흔적이 이른바 ‘회고의 본문들’(수 1:1-9; 12:1-6; 23:1-16; 사 2:11-3:6; 삼상 12:1-15; 왕상 8:14-53; 왕하 17:7-23)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4</sup> 여호수아 24장은 고대 원천들의 이야기에 대한 언급으로 보았고, 사경에 대하여 제사장계 계열의 작품으로 언급하면서 신명기계 작품과 분리해서 주장하게 되었다.<sup>5</sup>

이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펠릿(L. Perlitt)은 아시리아의 종주권조약과 관련하여 여호수아 24장을 연구한다. 그는 주전 7세기 배경에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요시아의 행렬에서 세겔의 설교는 등장하지 않으며, 또한 아시리아의 종주권조약양식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세겔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다. 특히 언약신학 양식(베리트)이 24장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단서가 된다고 주장한다.<sup>6</sup>

1970년대를 지나면서 여호수아 24장은 육경을 결정짓고 구경으로 인도하는 본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브리켈만스(C. Brekelmans)는 여호수아 24장이 삽입되어 추가된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장은 야휘

3 G. von Rad, *Das formgeschichtliche Problem des Hexateuch* (BWANT IV, 26; Stuttgart, 1938). 최근의 육경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T. Römer,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J. C. Gertz et al.(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813-830.

4 M.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18-19.

5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Stuttgart, 1948).

6 L. Perl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Band 3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82).

스트 본문으로 오경과 여호수아를 하나의 거대한 문학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중심에 구원역사의 소개가 있다고 보았다. 그 역사를 소개하는 본문으로 출애굽기 19장 3-6절이 있으며 24장 본문은 이 내용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한다. 선포의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신명기사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나 여호수아 24장에서 사무엘상 12장 안에서 유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 24장의 위치와 역할은 적어도 출애굽기 19장의 본문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7</sup>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은 오경의 중심부에 있는 시내산 이야기의 시작 본문이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시내산 이야기의 배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전적으로 여호수아 24장은 오경과 욱경 그리고 구경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뢰머(T. Römer)는 신명기계와 제사장계 연합 집단이 욱경의 반포를 위해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24장이 23장에서 사사기 2장 6-19절로 이어지는 신명기사가의 순서를 방해하고 있고, 이로써 24장은 23장과 달리 새로운 연설을 통하여 여호수아서 이후의 책들과 분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sup>8</sup>

오경 연구의 영향으로 여호수아 24장은 아휘스트계로 작성되었으나, 그 편찬자는 신명기사가로부터 수정되고 편집된 편찬자로 보는 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sup>9</sup> 카(David M. Carr)는 여호수아 24장의 본문을 제사장계(P)와 제사장계 이후(post-P)의 본문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흔적을 “제사장계의 세탁”(Priestly wash)으로 추정하면서 제사장계 이후의

7 C. Brekelmans, “Joshua XXIV: Its Place and Function”, J. A. Emerton(ed.), *Congress Volume. Leuven 1989* (Sup. to *Vetus Testamentum* 43; Leiden u.a.: E. J. Brill, 1991), 1-9.

8 T.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7<sup>2</sup>), 180.

9 최근 신명기사가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 (통권 29집, 2008년), 67-86.

결정적인 본문으로 주장했다.<sup>10</sup>

슈미트(H. -Ch. Schmitt)는 24장을 구경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수 24:24)해야 하는 본문이 사사기 6장 7-10절로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 사무엘상 12장에까지 그 내용은 지속한다고 보았다.<sup>11</sup>

여호수아 24장의 연구는 계속적으로 본문의 편집사적인 연구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도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본문이 어떻게 고대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제2성전시기에 율법주의 이데올로기의 편집 영향이 있었음을 논증한다.<sup>12</sup> 이 논증은 사회적인 이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본문의 편집이 이루어진 그 사회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여호수아 24장의 현주소는 제사장계와 신명기계 신학을 통합한 편찬자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고,<sup>13</sup> 이런 흐름이 오경의 형성

---

10 David M. Carr, "Strong and Weak Cases and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Post-Priestly Character of Hexateuchal Material",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28-29.

11 H. -C. Schmitt, "Die 'Sinai-Ouverture' in Ex 19,3b-9 als nachpriesterliche Verbindung zwischen Pentateuch und Vorderen Propheten, Mal'ak-, Hexateuch- oder Enneateuch-Fortschreibung?",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286-287.

12 V. Mäkipelto, *Uncovering Ancient Editing: Documented Evidence of Changes in Joshua 24 and Related Texts* (BZAW 513; Berlin: De Gruyter, 2018). 이 논문의 서론과 4.4.2 단원에서 여호수아 24장의 편집사적 흔적과 문서화된 본문의 사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겜의 배경 편집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3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7.

과 육경 및 구경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역사의 중요한 정신은 언제든지 본문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흔적이 본문에 내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 3. 여호수아 24장의 문학적 위치

육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호수아 24장은 사사기와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sup>14</sup> 이 문제에 대해서 뢰머(T. Römer)는 여호수아 24장이 23장에서 사사기 2장 6-19절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sup>15</sup> 내용상 실로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여호수아 22-23장은 여호수아 18장에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땅을 분배하는 장면과 연결되고 있고, 동시에 모세의 율법(수 23:6)에 기록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내용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또한 사사기 2장 8절과 9절은 출애굽기 1장 6절과 8절의 표현과 문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블룸은 출애굽기 1장이 사사기 2장을 모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차단하는 본문이 나타난다. 여호수아 24장은 땅 수취(언약)와 출애굽 전승의 결합으로서 세 겹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문맥상 사사기 6장 7-10절 사이와

---

14 E. Blum,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Ein Entflechtungsvorschlag”, M. Vervenne/J. Lust(eds.),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Literature* (Utggeverij Peeter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182.

15 T.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180. 번역본으로 다음을 참고하라. 토마스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김경식 옮김), (서울: CLC, 2020), 262-263.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6</sup>

“...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확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삿 6:8b-9)

분명히 육경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사고다. 유대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사고가 땅인데, 여호수아는 그 땅에 집중하여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오는 약속에 대한 가나안땅 수취전승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오경은 모세가 죽으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 오경 구성의 중심은 땅이 아닌 (시내산-)율법(출 19:1-민 10:10)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sup>17</sup> 이에 여호수아 24장 후반부에서 모세의 죽음처럼 여호수아의 죽음 기사가 기록되고 있지만, 사사기 2장 8절에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내용이 반복이 아니라 육경의 내용을 매듭짓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단서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신명기의 상벌 패턴으로 잘 알 수 있다. 더 이상 땅의 수취는 여호수아 후에는 주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이 23장에서 사사기 2장 6절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땅에 대한 정복기사는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케메니스의 권력층에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6 E. Blum, “The Literary Connection Between the Books of Genesis and Exodus and the End of the Book of Joshua”, Th. B. Dozeman/K. Schmid(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Atlanta: SBL, 2006), 103-104.

17 T.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181.

문체의 문제에 있어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연설한다. 여호수아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כה אמר יהוה אלהי ישרא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언자의 선포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문구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인데, 사사기 6장 8절과 사무엘상 10장 18절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신명기사가의 예언자 선포 양식은 백성의 태도를 규정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할 때 사용된다.<sup>18</sup>

본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출애굽 전승의 경험자들이 3인칭으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인칭 복수 “너희”로 기록되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2절), 너희의 조상(3절), 너희(5절), 너희의 조상(6절), 너희의 조상(7절) 등으로 표현된다. 특별히 5절에서 명확하게 1인칭과 3인칭 복수 그리고 2인칭 복수를 기록하면서 청자(독자)와 구원 사건을 경험한 장본인들을 마치 한 인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sup>19</sup> 분명히 이 야휘스트 연설문의 편찬자는 출애굽 전승과 구원사 경험을 본문의 청자와 독자를 마치 한 사람의 경험자로 동화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문학적 진술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을 빌어 자신의 연설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연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 여호와의 말이 전승 차원에서 1차적이지 않고, 개정되었거나 편집 또는 해석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2차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이 내용이 사사기 6장

18 C. Brekelmans, “Joshua XXIV: Its Place and Function”, J. A. Emerton(ed.), *Congress Volume. Leuven 1989* (Sup. to Vetus Testamentum 43; Leiden u.a.: E. J. Brill, 1991), 6.

19 David M. Carr, “Strong and Weak Cases and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Post-Priestly Character of Hexateuchal Material”, 28.

8절 이하와 사무엘상 10장 18절 이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 저자 또는 하나의 ‘그룹’ 편찬자가 이야기를 구성했음을 암시한다.

여호수아 24장은 문학 내용으로 23장과 분리된다. 23장은 22장의 실로 배경을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실로의 배경은 18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진다. 22장 11절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 끝에 제단을 쌓은 문제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콜-아테)이 실로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23장 2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23:6)을 강조하며 땅 분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23장은 “모세의 율법책”(6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언급한다. 이 매개어는 여호수아 8장 31절에서 기록되고 있다. 이 점에서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문학적인 틀로서 보더라도 제단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세의 율법책은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며 초막절 축제를 지내는 것과 관련 있다. 이 절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다름 아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다.(느 8:17) 다만 문학적인 문맥으로 비교할 때, 여호수아 22-23장은 이스라엘 지파 내부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느헤미야 8장은 초막절 행사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성회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은 실로에서 세겜으로 문학적인 장소가 이동한다. 그리고 제단의 문제는 사라지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념비가 될만한 돌을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는” 예식을 진행한다.

문학적으로 24장은 1절에서 세겜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 이들은 여

www.kci.go.kr

호화를 섬길 것을 스스로 증인한 계약의 당사자들(22절)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하듯이 연설한다. 이 내용은 매우 압축되어 소개하듯이 족장들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창 12장 1-3절) 내용의 주제인 “그 땅의 차지”까지 소개하고 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소개된다. 이런 면에서 24장 2-13절의 장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설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0</sup>

계속해서 14-28절은 하나의 문학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4-1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촉구가 이어진다. 이에 16-18절에서 백성들이 대답하고, 19-21절에서 여호수아가 마치 백성들이 여호화를 섬기지 않을 것처럼 경고하며, 22-24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릴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25-28절은 이 연설에 대한 결론부로 세겜에서 백성과 맺은 언약과 율례와 법도의 제정을 소개하고 그 기록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고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 증거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29-33절 단락은 24장의 결론부이자 여호수아의 결론부로 여호수아의 죽음과 야곱이 세겜의 땅을 100 크시타에 산 전승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50장의 유언이었던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마지막 기록물의 중요성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겜 지역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치 디아스포라의 ‘고향으로 귀환’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24장 2-13절의 연설문 내용은 조심스럽게 신명기 26장 5-9절과

---

20 L. Perl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Band 3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41.

비교되기도 한다. 제의 의식으로 소개되는 신명기 26장의 양식과 달리 여호수아 24장은 연설문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신명기에 이어 좀 더 세부적이며 확장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유사한 전승의 내용들은 조상들의 이방에서의 거류와 출애굽 사건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여호수아 24장은 광야 전승과 땅 수취 전승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2-23장은 '실로'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24장은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언급하고 있다. 23장이 실로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후 신명기사가의 흐름에서 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 그것은 실로가 제사장 계열과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신명기사가의 제의적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실로는 사무엘상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장 계열의 중심지로도 등장한다.<sup>21</sup> 신명기사가의 관점에서 실로에 관한 본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여호수아 18장 실로에 회막을 세움
- b)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의 유언(9절, 11절)
- c) 사사기 18장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31절)
- d) 사무엘상 1장 여호와와 그의 집 실로(24절)
- e) 사무엘상 3장 사무엘에게 나타난 여호와 현현 사건(21절)

신명기사가의 본문들에서 실로는 제의 장소로 언급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왕권이 세워지기까지 중요한 제의적 장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경 안에서 실로가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사가 본문에서 실로는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여호수아 24장이 문학적으로 '세겜'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문학적으로 세겜은 어

21 M. Görg, *Josua*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91), 105.

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겜은 이집트 중왕조 시대인 주전 1800년 경 소위 아마르나 시대에 정치적인 중심지로 나타나고 있다.<sup>22</sup> 실로의 이미지와 달리 세겜은 정치적으로 관점으로 소개되는 창세기의 본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창세기 12장, 33장, 48장은 정치적인 배경 위에서 이해되고 있고, 다만 창세기 35장은 정치적인 배경과 제의적인 배경 모두가 편집되어 나타나는 유일한 본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 24장을 전승사적 관점에서 볼 때, 육경 안에서 세겜 지역이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a)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세겜에 처음으로 도착, 제단을 쌓음: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 b) 창세기 33장 야곱의 귀환, 장막을 친 땅을 100 크시타에 구입한 뒤, 제단을 쌓음
- c) 창세기 34장 디나를 추행한 세겜
- d) 창세기 35장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벵엘로 떠나기 전, 이방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음
- e) 창세기 48장 애굽에서 야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며 얻은 땅, 요셉에게 그 땅 세겜으로 귀환할 것을 언급.

세겜 지역은 일반적으로 모두 창세기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호수아 24장의 세겜 배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세겜 지역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장소이며,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은 땅 분배가 이루어진 마지막 시점에서의 장소로 등장한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의 아들들과 이후 모세와 출애굽

---

22 M. Görg, *Josua*, 105.

백성들과 광야 백성들에게 심지어 신명기에서도 땅에 대한 언급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위에서 폰 라트의 여호수아 24장에 대한 해석은 육경 형성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육경을 암시하는 본문, 신명기 26장 5-9절, 6장 20-23절, 여호수아 24장 2-13절을 원시 본문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은 다수의 학자들로부터 비평을 면치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본문들이 신명기와 신명기계 문헌에 속하는 요약들이기 때문에 문학 집성 과정의 초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3</sup> 여호수아 24장은 이러한 의미들 가운데 육경의 내용들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24장 만이 가지는 육경에 대한 주요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13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시점으로 연설한다. 첫 번째 시점은 2b절 이하에서 “옛적에”로 언급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데라부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에서, 이후 모세와 아론의 애굽살이와 출애굽, 홍해 사건과 이후 광야 거주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투와 모압왕 발락 사건, 그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신 사건, 끝으로 신명기 6장 10-11절의 언급으로 신명기의 흔적과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내용이다. 두 번째 시점은 14절 이하에서 언급하는데, “이제는”(브아타, וְעַתָּה)으로 시작하는 부사의 의미는 전환된 현재의 시점에 그 중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환 시점에서 14절에 언급된 내용으로 그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조상들의 불신앙을 시초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며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14절)에 대

---

23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입문: 오경 해석을 위한 지침」(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9), 221.

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2절에서 소개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인데,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다.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증거는 실제로 성경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데라의 신앙 내력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상황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결국 두 가지 시점으로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과거에 여호와께서 불신앙을 은혜로 감싸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땅을 차지하였으므로 오직 여호만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강조하는 여호수아의 연설로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세겜'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세겜 지역은 창세기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며, 세겜이 언급된 창세기 본문들은 제사장 계열의 본문(P)과 비제사장 계열의 본문(Non-P) 그리고 제사장 계열 이후의 본문(Post-P)과 비제사장 계열 이후의 본문(Post-non-P)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베스트먼에 의해서 창세기의 세겜 관련 본문들을 자료비평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4</sup>

창세기의 세겜 본문	자료
12:1-9	J (Yahwist): Non-P
33:1-20(특별히 17-20절)	J 그리고 E / 편집(편찬자의 해석) = Post-Non-P
34:1-31	일반적으로 P, E.Otto는 J
35:1-5	P (Priestly-Elohim)
48장	Post-Non-P

24 C. Westermann, *Genesis. BKAT 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638-639, 654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16절)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청하는 본문이다. 야곱은 21절에서 요셉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임”을 유언한다. 편집비평 관점에서 접미사 “너희”는 야곱과 요셉의 대화로 볼 때 매우 어색하다. 오경 안에서 “너희 조상”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신명기 1장과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신명기사가의 본문을 수용한 편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48장 본문에서 세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22절은 33장 19절과 관련이 있다.<sup>25</sup> 위 표에서처럼,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 또는 땅 수취의 관점으로 세겜 언급은 비제사장 계열 또는 그 이후의 본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 땅에 대한 약속으로서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의 문학적 장소는 세겜이며 신명기사가 이전의 어떤 역사에도 세겜에서 발생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매우 유일한 본문이기도 하다.<sup>26</sup> 이 세겜은 분명히 여호수아 22-23장의 실로의 배경과 다른 배경을 전하고 있다. 실로(수 22-23장)의 배경과 세겜(24장)의 배경은 적어도 실로의 배경이 제사장 계열의 대표로서 나타날 때, 세겜의 배경은 땅 수취 전승의 대표되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문학적으로 상

25 다만 여기서 세겜은 본문의 의미로 볼 때, 언어유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6 L. Per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249.

이한 이 두 본문은 양식사적으로도 다른 어조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후로 사사기와의 문학적인 관련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여호수아의 연설문에서 야휘스트의 언급은 오경에서 언급하는 원초적인 야휘스트 저자가 아니라 제사장 계열의 사고를 재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야휘스트로 보인다. 이 통합 편찬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자료설을 통하여 24장 2-13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는 2절에서 야휘스트로 시작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데라 가족의 아브라함 전승을 언급한다. 창세기 11장에서 언급하는 데라의 족보는 분명히 제사장 계열의 족보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 본문에서는 데라의 가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에 초점이 있다. 이 경고는 여호수아 24장의 언약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3절에서 야휘스트 기록물인 창세기 12장 1-9절과 21장 1-3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전승을 언급하고, 4절에서 창세기 25장 24-26절, 36장 8절 그리고 46장 1-6절의 내용을 요약한다. 25장은 야휘스트, 36장과 46장은 제사장 계열의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6절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언급과 홍해 경험은 야휘스트와 제사장 계열의 혼합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6-7절은 제사장 계열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을 요약하고 있다. 이어 7b-10절은 광야전승을 소개하는 민수기 21-23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그리고 11-12절은 여호수아 6장과 2장 9절을 언급하면서 육경의 관점에서 땅 수취 전승을 광야 전승과 잇고 있다. 끝으로 13절은 신명기 6장 10-11절을 언급하면서 원신명기(신 6-28장)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언급한다. 땅 수취 전승은 신명기 6장 10-13절에서 조상들과 맹세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과 10-13절은 신명기의 원본문으로 이해된다.<sup>27</sup>

세겜 언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문학사적으로 역대기사가의 역사관(느 8:18) 과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23장에서 실로의 선언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킬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세겜은 야곱 전승에서 에돔 조상인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장면을 이끌어낸 장소이기도 한다. 에돔은 이방인으로 신명기 23장에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또한 실제로 느헤미야 13장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반영하는 이방인과의 분리 정책에서 에돔과 모압인은 대표적인 족속으로 등장한다. 특히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건설을 방해하는 산발랏은 모압인으로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성벽 건설에 대치국면을 만들었던 중요인물이기도 한다. 이 시대의 성벽 건축은 성전과 예배, 즉 제의와 관계가 없고 정치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파악된다.<sup>28</sup> 이후 어느 정도 화해의 장면이 연출되지만, 느헤미야서에서는 분리정책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제의적 장소인 세겜은 아브라함과 야곱 전승으로 볼 때,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이 주된 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전승의 의도는 결국 포로기 이후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들에 대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으며, 여호수아 24장의 편찬자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상을 전승의 역사들 속에 담고 있다.

---

27 U. Rüter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54-55.

28 느헤미야 13장에 대한 이방인 수용문제는 다음을 참고하라. 최중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1권 2호 (통권 56집, 2015년), 122-154.

## 5. 여호수아 24장의 전승사와 육경의 구성

여호수아 24장은 전체적으로 야휘스트(J-자료) 이후 시기의 비제사장계 자료(Non-P)로 기록되고 있다. 동시에 제사장 계열의 전승 자료를 포함한다. 1-13절은 J-자료를 이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명기사가의 해석을 첨부한다. 특별히 전승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육경의 구성사를 만들어가도록 암시한다. 이 장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디아스포라의 이미지로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도록 구성된다. 특별히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세겜 지역에서 제단을 쌓는 일은 세겜의 장소가 이방인에게도 매우 소중한 장소로 받아들여지고 기억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로 제공된다. 이렇듯 이방인 포용과 화해 문제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의 종교와 사회 정책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이어 요셉의 뼈는 야곱의 뼈를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미 요셉은 자신의 무덤의 장소를 만들었고, 그 장소가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세겜으로 구체적으로 지명된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마무리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율례와 법도(25절)를 제정하고, 마치 출애굽기 40장 20-21절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에 여호수아의 말을 기록하고 여호와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돌을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책(수 24:26)은 느헤미야 8장 8절, 18절과 9장 3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모세의 율법책을 소개하는 용어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여호수아 24장의 하나님의 율법책은 여호수아의 기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23장의 모세의 율법

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29</sup>

22-23장과 문학적인 배경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장소의 언급이다. 세겜이라는 장소가 주는 전승사적 의미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24장은 야훼스트 자료로 언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사장 계열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제사장 계열의 전승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2장은 비제사장 계열의 본문이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여호와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 첫 장소가 세겜이었다. 전승사 관점에서 고향으로의 귀환은 창세기 안에서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창세기 12장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호와 현현 사건이 발생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는 약속을 한다. 이후 벨엘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창 12:8)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과 모레 상수리나무의 배경은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여호와의 성소가 세워지게 된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세겜 땅의 상수리나무에는 하나의 속격인 “모레”(מור)가 연결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신탁을 의미하고 있고, 고대에는 상수리나무가 거룩한 장소로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 24장 26절의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세겜 지역이 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 성소가 가나안 지역 종교의 비판이 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그 반영이 결국 창세기 12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는 신명기 12장의 중앙성소화를 암시하는 “여호와께서 자

---

29 E. Blum,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Ein Entflechtungsvorschlag”, 205.

30 C. Westermann, *Genesis. BKAT II/2*, 178.

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철저히 지켜 지게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겜은 귀환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제의적인 장소로 보인다. 먼저 세겜 지역은 비제사장 계열 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전승으로 나타난다.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일이다. 제단을 쌓는 행위를 통하여 디아스포라의 귀환은 의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세겜 지역에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진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장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해와 포용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sup>31</sup> 신명기사가 본문 안에서 제의적 장소에서의 이방인 포용 문제는 열왕기상 8장 41-43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문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피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신명기사가는 여호와와의 이름을 인정한 이방인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56장 6-7절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31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화해 주제는 다음을 참고하라. 최중원, “이스라엘 종교사로 본 화해신학”, 『구약논단』 25권 2호 (통권 72집, 2019), 36-65.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호수아 24장이 전승사적 관점에서 사용한 세겜 전승은 2-13절에 기록된 조상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받아들이면서 각색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언약의 형태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한다. 이는 특별히 신명기 6장에서 28장에 기록된 소위 언약양식으로 기록된 원신명기의 내용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sup>32</sup> 신명기 6장 4-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sup>4</sup>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sup>5</sup>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6:4-5)

“<sup>1</sup>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 <sup>2</sup>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 <sup>15</sup>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28:1-2, 15)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을 세겜 전승에 따라서 육경의 내용들을 재배열하면, 현재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32 원신명기의 언약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erwörden, 윗글(2006), 14-18.

여호수아 24장	내용	육경
2aβ절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다	창 11:26
2b절	다른 신을 섬기다	창 35:2-4
3a절	〈세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다	창 12:1(~9)
3b절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삭을 줌	창 21:1-3
4a절	아굽과 에서	창 25:24-26
4bα절	에서는 세일 산 얻음	창 36:8
4bβ절	아굽 가족 애굽으로 내려감	창 46:6
5a절	모세와 아론 보냄	출 3-7
5b절	재앙과 인도	출 7-12
6절	홍해까지 쫓아옴	출 12-13
7a절	홍해 사건	출 14
7b절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	민 10-34/신 2:7,14
8절	아모리 족속의 땅과 전쟁	민 21
9절	모압 왕 바락과 발람의 축복	민 22
10절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	민 23
11절	여리고 입성	수 6장
12절	왕벌과 아모리 두 왕 쫓아냄	출 23:28/신 7:20 // 민 21/수 2:10
13절	가나안 땅 거주와 포도원과 감람열매 얻음	신 6:1-11
26절	〈세겜〉 하나님의 율법과 상수리나무 아래 돌	창 12:6-7/35:4
32절	〈세겜〉 의 땅 100크시타에 구입과 요셉의 뼈	창 50:5/33:19

은 매우 흥미롭다.

이 도표를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 24장 1-1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작은 신앙고백문은 신명기사가 이후의 상황을 인지할

www.kci.go.kr

수 있는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비록 야곱과 에서가 세겜에서 만나는 내용이 공백으로 남지만, 세겜 지역의 역할은 야곱과 에서의 장면을 완전히 삭제하지 못한다. 창세기 33장의 두 형제의 만남은 세겜 지역에서 에베드리는 야곱의 ‘세겜 도착’으로 마무리된다. 이 장면은 32장 3절 “세일 땅 에돔 들”에서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며, 이스라엘과 에돔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볼 수 있는 본문이다. 신명기 23장 7절은 기록하기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라고 기록하면서 에돔에 대한 형제애를 강조한다. 그러나 포로기 에돔은 이스라엘 멸망에 큰 역할을 한 듯 보인다. 오바다서는 그 내용을 담아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 49장 7-10절에서도 에돔의 심판 예언은 매우 강하다. 에돔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포로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명기는 포로기의 신학을 극복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재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 여호수아 24장의 역사 전승의 요약본처럼,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의 전승사 구성을 사무엘상 12장 6-12절에서 만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본문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33</sup>

---

33 H.-C. Schmitt, “Die ‘Sinai-Ouverture’ in Ex 19,3b-9 als nachpriesterliche Verbindung zwischen Pentateuch und Vorderen Propheten, Mal’ak-, Hexateuch- oder Enneateuch-Fortschreibung?“, 288.

사무엘상 12:6-12	내용	육경과 구경(?) 본문
6절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출애굽	출 3-7장, 13-14장
8a절	아굽이 애굽에 들어감	창 46:1-7
8bα절	조상들의 부르짖음	출 3:7-8
8bβ절	모세와 아론을 보내 출애굽	출 3-7장
9절	하술, 시스라, 블레셋, 모압의 손에 넘김	삿 4:2; 10:7; 13:1; 3:12
10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범죄함	삿 6:6; 10:10
11절	여룹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보내 구원	삿 6:12-14; 7:1; 4:6; 11:29; 삼상 7:3
12절	나하스 암몬 왕과 왕을 요구	삼상 11:1-2; 8:19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증언한 이 기록물에서 그가 밝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은 출애굽 전승으로 시작한다. 비록 여호수아 24장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밑그림과 역사를 요약하는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의 흐름은 의도적으로 사무엘 시점의 이야기까지 요약하면서 전체 신명기사가의 역사 관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 전승이다. 신명기사가의 신학의 중심은 적어도 출애굽 전승임을 두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여호수아 24장의 편찬자는 일차적이든지 아니면 이차적이든지 육경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세겜 전승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제사장 편집의 흔적과 포로기 이후의 최초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문학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세겜에서 에서와 야굽의 화해 주제(창 33장)는 이방인과의 화해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이 사건은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매우 작은 단서를 통하여 창세기의 편찬자가 이방인과의 화해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흔적들은 이방인과의 연합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결혼 문화,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가솔들의 할례(창 17:13), 요셉의 아내 아스낫(창 41:50),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여리고의 라합(수 2장) 등 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의 성전이 약 주전 425년에 건축 되었다고 알려진다. 또한 엘레판틴의 문서를 통하여 살펴볼 때, 대제사장 여호하난을 중심으로 유대 정책이 주전 410년 경에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알베르츠는 육경의 최초 형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만일 에스라 사명의 시기를 주전 398년으로 추정한다면, 그는 육경의 편집이 주전 430에서 410년 사이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sup>34</sup> 이에 따라서 오경의 편집과 구성은 적어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6. 나가기

여호수아 24장은 전승사를 통하여 육경의 구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하여 육경의 복잡한 자료들이 어떻게 배열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그들의 복잡한 전승사와 편집의 역사들을 그려볼 수 있었다. 적어도 여호수아 24장이 구성하여 기초

34 R. Albertz, "The Formative Impact of the Hexateuch Redaction: An Interim Result",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70-106.

로 받아들인 육경의 전승본문들은 신명기계와 제사장계 집단의 통합된 작품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 24장은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족장 전승과 출애굽 전승, 광야 전승과 땅 수취 전승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하나의 문학체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여호수아 24장의 육경의 의도는 적어도 세겔 전승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전승을 통하여 육경의 신학은 디아스포라의 고향 땅 귀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주하고 야곱처럼 이방인과 화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서의 모세의 율법책(수 8:31, 34)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책(수 24:26)은 역대기사가의 모세의 율법책(대하 25:4; 34:14; 느 8:1)과 하나님의 율법책(느 8:8, 18; 9:3)의 의미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적용하고 동시에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소고는 여호수아 24장의 편찬자가 페르시아 중간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며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정된 신명기계 역사관과 제사장계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흔적들이 육경의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 본문이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본 소고의 주제는 언제든지 열려있음은 분명하다.

## 참고문헌

-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 (2008년 6월), 67-86.
-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입문: 오경 해석을 위한 지침」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9).
-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122-154.
- 최종원, “이스라엘 종교사로 본 화해신학”, 「구약논단」 72집 (2019년 6월), 36-65.
- Albertz, R., “The Formative Impact of the Hexateuch Redaction: An Interim Result”,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53-74.
- Blum, E.,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Ein Entflechtungsvorschlag”, M. Vervenne/J. Lust(eds.),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Literature* (Uttgeverij Peeter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181-212.
- Blum, E., “The Literary Connection Between the Books of Genesis and Exodus and the End of the Book of Joshua”, Th. B. Dozeman/K. Schmid(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Atlanta: SBL, 2006), 103-104, 89-106.
-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7.
- Brekelmans, C., “Joshua XXIV: Its Place and Function”, J. A. Emerton(ed.), *Congress Volume. Leuven 1989* (Sup. to Vetus Testamentum 43; Leiden u.a.: E. J. Brill, 1991), 1-9.
- Carr, D. M., “Strong and Weak Cases and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Post-Priestly Character of Hexateuchal Material”,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19-34.
- Schmitt, H.-C., “Die ‘Sinai-Ouverture’ in Ex 19,3b-9 als nachpriesterliche Verbindung zwischen Pentateuch und Vorderen Propheten. Mal’ak-, Hexateuch- oder Enneateuch-Fortschreibung?”,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277-303.
- Görg, M., *Josua*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91).
- Kratz, R. G., “The Pentateuch in Current Research: Consensus and Debate”, Th. B.

- Dozeman et al.(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Mäkipelto, V., *Uncovering Ancient Editing: Documented Evidence of Changes in Joshua 24 and Related Texts* (BZAW 513; Berlin: De Gruyter, 2018).
- Noth, M.,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Perlitt, L.,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Band 3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von Rad, G., *Das formgeschichtliche Problem des Hexateuch* (BWANT IV, 26; Stuttgart, 1938).
- Römer, T.,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72).
- Römer, T.,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J. C. Gertz et al.(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813-830.
- Rüterswörden, U., *Das Buch Deuteronomium* (NSK-AT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 Schmid, K., "Introduction", J. C. Gertz et al.(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779-782.
- Schmitt, H.-C., "Die "Sinai-Ouverture" in Ex 19,3b-9", F. Giuntoli/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277-303.
- Stackert, J., *Deuteronomy and the Pentateuc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2).
- Westermann, C., *Genesis. BKAT 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 검색어

여호수아 24장, 율경의 전승사와 구성, 제사장계와 비제사장계의 통합 편찬자,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 ABSTRACT ]

## A Study on the Traditional History of Joshua 24:1-13 and the Compositional Historical Approach of Hexateuch

Jong-Won Choi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Joshua 24 is an important text in forming the composition of the six books through traditional histor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omplex data of Hexateuch could be arranged through Joshua 24, and traces their complex history of transmission and edition. Accordingly, it avers that at least the traditional texts of Hexateuch composed and accepted by Joshua 24 are the result of the integrated work of the Deuteronomic and Priestly groups.

Joshua 24 consists of content that continues from at least Genesis 12 to Joshua 6, and thus the patriarchal tradition, the Exodus tradition, the wilderness tradition, and the land acquisition tradition are introduced in sequence as one literary body. The intention of Hexateuch on Joshua 24, composed in this way, could at least be constructed through the Shechem tradition, and this tradition presents that the theology of Hexateuch is filled with the desire for the return of the Diaspora to their homeland. This further proves that the book of God's Law, including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in the book of Joshua, accepts and simultaneously expands the meaning of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and the book of the Law of God in Chronicles.

Therefore, the compiler of Joshua 24 had a premonition that a new

www.kci.go.kr

era was approaching beyond the mid-Persian period and he aspired for a new community of Israel. They accepted the revised post-Dtr view of history and the post-P view of history, and these traces are confirmed in the text of Hexateuch. It further implies that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to examine how this text is influencing the backdrops of Persian social problems is always open.

key words

Joshua 24, Traditionskritik and Compositon of Hexateuch,  
Integrated composer of the priestly and non-priestly,  
Israel community after Exil

투고일: 2023년 10월 11일

심사일: 2023년 10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1일

www.kci.go.kr